

## 미국 HD의 현주소

현재 미국은 모든 방송신호를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강제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그 최종 시한이 몇 달 남지 않은 상황이다(6월 12일로 연기되었음). 현재 이 전환사업은 두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논의를 낳고 있다. 첫째로, 방송을 수신하는 일반 가정의 입장에서, 모든 방송이 디지털 신호로 송출됨에 따라 기존의 아날로그 신호만을 받을 수 있는 텔레비전을 디지털 텔레비전으로 교체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급·유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물리적으로 디지털 신호를 송출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디지털 신호의 기술적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 콘텐츠를 어떻게 제작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송제작사와 제작자의 입장에서의 논의들이다. 이번 호에서는 후자의 논의들을 배경으로 하여, 미국 방송사들이 방송 프로그램 콘텐츠 제작에 있어 기존의 Standard-Definition(SD) 영상에 비해 상당히 많은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High-Definition(HD) 영상으로의 전환에 주목하여 그 현주소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특히 리얼리티 쇼와 같은 비드라마 콘텐츠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 HD급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재정적 문제 대두

몇 년간의 지속적인 투자로 인해 현재 TV방송 드라마들은 HD 화질로 완벽한 영상을 즐길 수 있지만, 리얼리티 쇼와 같은 대부분의 각본이 짜여지지 않은 프로그램들은 아직까지 SD 화질에 머물러 있다. Juma엔터테인먼트 사장인 밥 호로위츠(Bob Horowitz)는 이에 대해, “많은 리얼리티 TV 프로듀서들처럼 우리도 공중파나 케이블TV에 공급할 리얼리티 쇼(미리 각본이 짜여지지 않은 모든 오락영상을 포함)를 두 가지 예산으로 준비하곤 한다.” 하나는 일반 SD급으로, 다른 하나는 보다 비용이 높은 HD급으로 내보낼 때의 경우이다. HD로 방영되었던 A&E의 <Tattoo Highway>와 곧 ABC가 SD급으로 방영할 예정인 <Celebrity Superstars> 등을 제작·투자한 그는 “나는 가능하면 최대한 많은 리얼리티 쇼들이 HD로 감상되기를 원한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현재 방송사들과의 공생을 위해 그들의 재정적 문제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대처해야만 한다”고 말한다.

프로듀서들은 HD의 한층 강화된 영상과 음질이 보다 양질의 TV영상물 제작에 도움이 된다고 입을 모은다. 배경 세트와 의상이 더욱 생생하게 보일 뿐만 아니라, HD카메라는, 예를 들어 심지어 <American Idol>의 출연자가 사이먼 코웰(Simon Cowell, 4명의 심사관 중 1명)의 혹독한 리뷰를 들은 뒤 흘리는 눈물까지도 섬세하게 잡아내기 때문이다. 이는 분명 제작자의 입장에서 보면 많은 제작 영감을 살

릴 수 있는 기술적 혜택이라고 말할 수 있다.

TV드라마의 경우 몇 해 전부터의 점진적인 전환에 힘입어 HD가 표준으로 자리 잡아 왔지만 현재 토크쇼나 스포츠, 뉴스, 리얼리티 쇼 등은 여전히 SD급으로 제작되고 있다. 방송사의 경영자들은 이러한 배경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물은 '돈'이라고 말한다. 경영진의 입장에서 리얼리티 쇼들은 예산 균형을 맞추고 핑크 난 스케줄을 때우기 위한 방편 정도이지 TV드라마만큼 많은 예산을 들여 제작하려고 하지 않는다. 게다가 대부분이 단편으로 제작되거나 재방영이 잘 되지 않는 '경쟁 방식'의 쇼들은 제2의 시장(second-window market: 예를 들면 DVD나 Video 제작 및 배급 등) 마케팅에도 한계가 있다.

또한, 지금과 같은 경제 침체기에 다수의 방송사는 긴축 경영을 천명하고 있으며, 광고 시장 역시 크게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한 많은 방송사의 프로그램들은 낮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선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자들은 HD 제작 환경에 대해 빠르게 구비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믿고 있지만, 이러한 경제적 분위기 속에서 선뜻 방송 경영진에게 HD 장비와 제작 환경을 주장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하지만 주목해 볼 만한 예외들이 있다. 지난해와 올해 Bravo와 A&E와 같은 케이블 방송사들은 HD로 제작되는 프로그램 수를 계속해서 증가시키고 있으며, National Geographic과 Discovery Channel과 같은 몇몇의 사업자들도 다수의 HD 프로그램들을 구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케이블 방송사들은 HD로 구현되는 논픽션 프로그램들을 제작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많은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대표적으로 그러한 논픽션 프로그램이 거대한 공중과 방송사들과는 달리 그들의 가장 핵심적인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케이블 방송의 편성을 살펴보면 프로그램 콘텐츠 수의 절대 부족으로 주요한 몇몇 프로그램을 반복적으로 송출해야만 하며, 이러한 반복적 송출은 길게는 몇 년간 계속되기도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케이블 방송사들은 최상의 질적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HD를 선택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프로그램들이 몇 년이 지나서도 낙후된 콘텐츠가 아닌 고품질의 콘텐츠로 인식되길 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큰 규모의 공중과 방송사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현재 방영 중인 FOX의 <American Idol>, CBS의 <Survivor> 그리고 ABC의 <Dancing With the Stars>와 같은 소수의 리얼리티 프로그램만이 HD로 제작되며 송출되고 있다.

ABC의 <Dancing With the Stars>의 제작을 책임지고 있는 코나드 그린(Conrad Green)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사람들은 HD의 고화질이 자신들에게 실제 라이브 쇼를 보는 듯한 느낌을 갖게 만들며, 이러한 라이브 쇼들은 바로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다시 말해 내가 쇼 무대에 실제로 있는 듯한 생생한 체험을 가능케 한다고 말한다. 또한 HD를 경험한 사람들은 SD급의 영상을 보는 것 자체가 프로그램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며, 이런 경험은 상당히 실망스러운 것이다"라고 그는 말한다.

## HD의 계속되는 성장

미디어의 실제 보급 정도와 얼마만큼 대중화가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HD 시장에 있어 중요한 의미일 수 있다. 현재까지 미국 내 가정에서 HD급 영상을 구현할 수 있는 텔레비전 수는 아직 과반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SD텔레비전에서 HD텔레비전으로 업그레이드되는 성장률을 살펴본다면 이 수치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Nielsen Media Research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전체 가정의 22.2%(약 1억 1,400만)에 해당하는 가정들이 HDTV 전용 신호를 수신하고 있으며, 이는 작년에 비해 상승한 수치라고 보고하고 있다.

FCC의 디지털 텔레비전으로의 의무 전환 마감일이 6월 12일로 연기되었지만, 이제 몇 달 남지 않은 시점에서 더욱 많은 미국인은 케이블과 위성방송을 통해 HD 프로그램들을 감상하기를 고대할 것이다. “고화질 HD 방송 프로그램은 이제 어느 곳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케이블과 위성 사업자들은 HD로 무장한 100여 개의 채널을 공급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Horizon 미디어의 브래드 어게이트(Brad Adgate) 미디어 연구 실장은 말한다.

HD로 방송되는 <American Idol>, <Dancing With the Stars> 그리고 <Survivor>(모두 경쟁 방식으로 이루어진 리얼리티 형식의 방송오락물)는 장르와 상관없이 현재 미국에서 가장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들 프로그램은 프라임 타임에 모두 편성되어 HD 업그레이드에 대한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최근 여덟 번째 시즌을 맞고 있는 <American Idol>의 경우 세 번째 시즌부터 본격적인 HD 촬영에 들어갔으며, 여기에는 가장 큰 스튜디오용 HD 카메라부터 작은 휴대용 HD 핸디캠까지 상당수의 HD 장비들이 동원되고 있다. <American Idol>의 Ken Warwick 책임 프로듀서는 HD 영상기술은 이 쇼를 보다 시각적으로 훌륭하게 만들며, 참가자들의 퍼포먼스들을 더욱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러한 기술적 혜택은 시청자들을 쇼에 더욱더 매료되게 만든다고 말한다. 그는 계속해서 “나는 HD 장비들을 이용해 쇼의 모든 사람을 영상에 담을 수 있으며, 그러한 영상들은 멋진 방송용 그림들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말한다.

몇몇의 방송 프로듀서는 정부가 요구하는 HD 방송 콘텐츠의 최소 방영시간을 충족시킬 필요를 느끼고 있지만, 그 최소한의 시간에 맞추려고만 할 뿐 그 이상의 HD 프로그램을 제작하려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사실 FCC는 강제적인 HD 편성 시간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이는 제작자들에 대한 방송사업자의 압박으로 보인다. 케이블 방송 채널들을 살펴보면, 이들은 HD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방영할 수 있는 다양한 서브채널과 프로그램 편성을 필요로 한다. 대다수의 큰 케이블 방송사들은

부가적으로 연중무휴 방영하는 서브채널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채널들을 통해 자체 HD로 제작된 프로그램들을 반복적으로 내보내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디스커버리 채널은 2007년 이후로 모든 방송 콘텐츠를 HD 영상으로 바꿀 것이라는 목표를 정한 바 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아주 손쉽게 성취했다고 존 포드(John Ford) 사장은 말한다. “사실 초기에는 HD로 촬영된 영상들을 편집할 수 있으며, 또한 저렴한 가격으로 이러한 편집을 제공하는 포스트 프로덕션 편집 사무실들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현재는 방송 관련 사업들이 HD로 발 빠르게 전향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불 비용도 점점 저렴해지고 있다.”

케이블 채널의 고위 관계자들은 HD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 이유로는 케이블 채널들이 제작한 프로그램들은 반복적으로 방영되어야 하며, 북미 지역 혹은 전 세계적으로 제작된 프로그램을 판매할 때, HD로 제작된 프로그램이 더욱 높은 평가를 받아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존 포드는 이에 대해 “만약 HD로 제작하지 않는다면, 방송 프로그램의 생명(재방영과 판매를 포함)을 단축시키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Bravo 채널의 경우, 올해 안에 모든 프로그램을 HD로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앤디 코헨(Andy Cohen) 제작 및 프로그램 총책임자는 말한다. Bravo에서 인기리에 제작되고 있는 <Top Chef>, <the Real Housewives franchise> 그리고 <Top Design>과 같은 쇼들은 이미 HD 촬영 준비를 끝마친 상태다. “우리가 세상을 더욱 선명하며 아름답게 영상으로 담을 수 있다면, 왜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단지 본격적인 HD 전환을 경제적 상황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현재 우리의 진행 단계이다”라고 코헨은 말한다.

심지어 엔터테인먼트 정보만을 다루는 E!채널도 HD 제작을 선언한 상황이다. 간판 프로그램인 <Denise Richards: It's Complicated and Keeping Up With the Kardashians> 쇼의 경우 이미 HD로 제작되고 있다. A&E의 경우 거의 모든 프로그램이 HD로 제작되고 있으며, 자매 채널인 Biography 채널 역시 메인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HD 제작에 들어갔다고 한다.

하지만 몇몇 케이블 채널은 HD로의 전환에 아직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MTV의 경우 <the Brooklyn edition of The Real World>만이 리얼리티 쇼로서 유일하게 HD로 제작되고 있으며, 자매 채널인 VH1에서는 <Rock of Love Bus>와 <I Love Money 2>만이 HD로 제작되고 있는 상황이다.

### 일선 제작자들이 당면한 어려움들

만약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HD로 촬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제작자들은 현재 SD로 시청하고 있는 다수의 시청자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HD로 촬영된 영상물이 SD로 압축되어질 때, 16:9 비율의 HD 화면은 4:3 비율로 바뀌어야 하며, 이

로 인해 많은 부분의 영상들이 손실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양쪽 면의 영상들이 자동적으로 삭제되며, 위쪽과 아래쪽도 조금씩 잘려 나가게 된다. 촬영과 편집 시, 영상화면은 반드시 작은 화면에서 미리 점검되어야 한다. 혹은 반대로 3:4 비율에 맞춰 촬영된 영상이 16:9 비율의 텔레비전으로 방영될 때 양쪽에 나타날 검은색 바(빈 공간)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지도 꼭 고려되어야 할 점이다. 또한 자막이나 부가적인 설명들을 화면에 넣는다면 양쪽 비율 모두를 고려하여 배치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프로젝트 <Runway>와 <Last Comic Standing>을 기획·제작한 Magical Elves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HD와 SD급 각각 2개의 리얼리티 시리즈를 제작했다. Magical Elves의 프로듀서 댄 컷포스(Dan Cutforth)는 HD 쇼의 영상이 더 뛰어나지만, HD로 영상물을 제작할 때에는 아날로그 시청자들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그는 계속해서 “(HD 영상의 경우)디테일과 해상도는 정말 놀라웠고 무대장치와 조명도 환상적으로 보였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3:4 비율의 화면으로 구성해야만 했고 모든 화면을 활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HD가 보편화표준화 되어갈수록 이러한 사소한 문제점들은 점차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호언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것이 언스크립트(별도의 각본이 짜여져 있지 않은) 방송물 모두에 일률적으로 적용된다고는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궁핍한 예산은 HD에 있어서 더욱 커다란 과제이기 때문이다. Horizon Media의 브래드 애드게이트(Brad Adgate)는 “몇몇 프로그램이 끈질기게도 SD로 남아 있지만 프라임 타임에 방영되는 90% 이상의 쇼는 HD로 송출된다”고 말한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살펴보았듯이, HD 영상 제작은 직접적으로는 HD를 구현할 수 있는 카메라 등의 촬영 장비로부터 간접적으로는 고해상도 화면에서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조명과 세트, 의상 등의 퀄리티, 그리고 후반 작업인 영상편집에 이르기까지 기존 방송 제작에 대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일체를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전환은 분명 재정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텔레비전의 보급과 대중화는 방송사들로 하여금 더욱 양질의 HD 영상을 다수 제작하도록 유도할 것이며, 방송사 또한 자신들의 리얼리티 쇼의 성공을 바란다면 HD영상으로의 전환이 대세임은 분명 간과하지 못할 문제들로 보인다.

● 참조 :

- Romano, A (2009) HD's Reality Check, Broadcasting & Cable. Referred from <http://www.broadcastingcable.com/article/189932>

-HD\_s\_Reality\_Check.php

● 작성 : 김정규(미국 엘라배마 대학 텔레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과정,

ozzy104@gmail.com)